

2008년 경제전망과 주류산업



은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경기상승세 이어질듯

2007년 한국경제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다.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중요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06년 말부터 상승추세를 보였다. 즉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 지수, 건설기성액, 도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서비스업활동지수(도소매판매 제외), 비농가취업자수, 수입액 등 8개 지표를 하나로 묶은 이 지표가 2007년 1월을 바닥으로 상승추세를 보인 것이다.

경기를 판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경제성장률을 보아도 경기상승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은 2007년 1분기 4%를 저점으로 2분기 5.0%, 3분기 5.2% 등으로 높아졌다. 경기의 연속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은행이 주(主)지표(主指標)인 보조지표로 작성·발표하고 있는 전기비 성장률도 2007년 1분기 0.9%에서 2분기 1.8%로 높아졌다. 3분기에는 1.4%로 다소 낮아졌지만 이를 가지고 경기하강이 시작됐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경기흐름이 개선된 것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서도 알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07년 중반이후 기준치인 100을 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6개월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계획,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 매월 작성하는 소비자자기대지수도 2006년말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경기 지표 개선은 경기가 앞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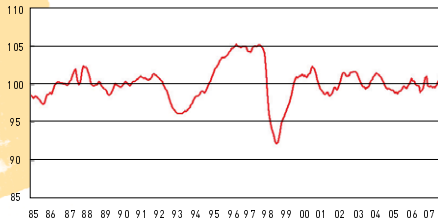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대 후반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것이 전망기관들의 대체적인 추정이다. 이는 2006년 성장률 5%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200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8%로 내다보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성장률을 4.6%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성장률보다 다소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이다.

그러나 국내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7년보다 다소 높아진 5%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 LG 등 민간연구소가 5%로 전망하고 있고, 현대연구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5.1%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세계경제가 둔화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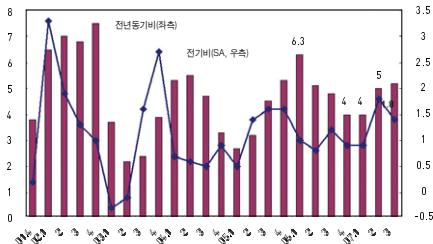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가불안과 달러화 약세 등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근거는 몇가지 있다. 먼저 시장친화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심리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건설산업 침체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점도 있다.

아울러 세계경제도 상반기중 둔화추세를 멈추고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경기를 낙관하게 하는 근거다.

경기사이클(동행지수순환변동치)



실질경제성장률



소비와 투자도 회복 전망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장의 내용이다. 성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순수출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GDP 구성항목인 민간소비는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즉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1분기 4.1%에서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4.2%와 4.9%로 상승했다. 특히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수가 0.84(한국은행 분석)로 매우 높은 내구재 소비증가율이 2004년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소비회복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가계소득이 임금소득과 자영업자 소득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있다.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도 소비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다만 2005~2006년중 가계부채 급증과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2007년 1월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해에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소비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근거로는 교역조건(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값)과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고용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상승에 따른 부의효과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매력상승 요인도 소비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소득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모델 부재와 외환위기후 보수적으로 변한 경영풍토, 기업가 정신의 쇠퇴, 각종 규제 등 때문에 회복세는 매우 미약하다. 2003년 -1.2%를 나타냈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4년 3.8%, 2005년 5.7%, 2006년 7.6% 등으로 높아졌으나 한 자리수에 머무르고 있다. 2007년 들어서는 상반기에 설비투자가 11.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3분기에 2%로 다시 크게 떨어졌다. 연간 설비투자 금액(2000년 실질가격 기준)도 1996년 78조원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1조원으로 급감했다가 회복되고 있으나 2006년 85조원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가까스로 넘어선 상태다.

새해 설비투자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와 각종 경제활성화 조치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소비심리 회복도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국내 기계수주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투자활성화를 기대케 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투자는 위축세를 지속해 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6년 '8·31대책' 등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것이 가격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한편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축부

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장기 침체 현상을 빚고 있다. 건설투자는 2003년에만 해도 7.9% 늘었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1.1%와 0.4%로 낮아졌다. 2006년에는 건설투자가 0.4% 줄었으며, 2007년 들어서도 1분기 3.9%, 2분기 3.2%, 3분기 1.1%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새해 건설투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점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컸던 민간과 건축분야의 회복이 두드러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새 정부도 부동산 값 앙등을 우려해 과감한 규제완화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여 건설투자 회복을 지나치게 낙관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원화절상 속에 경상수지 악화

2004년부터 절상되기 시작한 원화가치는 2007년 들어서도 절상추세가 지속됐다. 기말환율 기준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값은 2004년 15.2% 상승한데 이어, 2005년과 2006년에도 각각 2.3%와 8.8% 상승했다. 2007년 들어서는 9월말 현재 1.6% 상승했다. 원화값 상승률은 다소 완화됐으나, 2004년 이후를 보면 원화값 상승률이 28%나 된다. 일본 엔화에 비하면 그동안 원화가치가 과도하게 절상된 셈이다.

원화가치가 이처럼 상승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외화 공급이 외화수요를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누적과 자본수지 흑자로 한국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이 넘쳤고 이에 따른 원화절상 압

력을 줄이기 위해 외환당국이 간헐적으로 '달러화매입-원화매각'의 시장개입을 단행했지만 원화절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본수지 흑자다. 2007년 들어서도 2006년에 이어 증권투자와 직접투자에서는 큰 폭의 자본순유출이 나타났지만, 해외차입이 크게 늘어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이 때문에 원화절상 압력이 더욱 커진 것이다. 2007년 들어 9월까지 증권투자 수지는 196억 8,900만달러의 적자를, 직접투자 수지는 62억 7,300만달러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차입은 무려 309억 6,600만달러에 달했다. 이 점은 경상수지 흑자 누적 속에 자본수지가 적자를 지속해 환율절상 압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앞으로도 원화까지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본수지 흑자를 대폭 줄이거나 적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아무튼 원화값 절상으로 경상수지(순수출)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상품수지는 그러저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여행, 유학, 연수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합한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될 직전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해에 경상수지가 26억달러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대부분 기관도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외환위기에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결국 마감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불안, 금리 상승세

소비자물가는 2006년 2.1% 상승한데 이어 2007년 상반기에도 2%대의 상승률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분기들어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10월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 상승했는데, 이러한 물가 오름세 확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과 전년동월의 낮은 상승(2.2%)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곡물 제외)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율은 2%대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물가는 대외변수인 국제원자재 가격이 나 날씨 등 자연여건에 영향을 받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주요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기말치 기준)

	엔화	유로화	호주달러화	대만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중국위안화	인도루피화	한국원화
2003년	11.0	19.9	34.0	2.3	2.2	0.0	6.3	-0.5
2004년	4.3	7.7	4.0	7.2	4.1	0.0	-9.3	15.2
2005년	-13.0	-12.7	-6.2	-3.5	-1.8	2.6	-5.6	2.3
2006년	-0.8	11.5	7.6	0.7	8.5	3.3	9.3	8.8
2007년 9월말	3.2	6.0	12.4	-0.2	3.2	4.1	-1.6	1.6

* 플러스는 절상률, 마이너스는 절하률

안정되면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콜금리를 5차례 올린데 이어 7월과 8월 또 다시 올림으로써 현재는 5.0%를 유지하고 있다. 콜금리 상승과 은행의 자금확충 등의 영향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나 국고채, 회사채 등의 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6월 이후 17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올렸던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 9월 18일 이후 연방기금금리를 1%포인트 내리는 등(현재 4.25%) 금리 인하쪽으로 정책을 선회한만큼 우리 통화당국도 당분간 금리인상이 어렵게 됐다.

주류소비도 완만히 회복될듯

경기가 회복될 경우 주류소비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주류는 비내구소비재로서 그 때 그 때의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가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류 소비에 대한 경기의 영향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위스키 소비 회복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위스키 소비는 법인카드 점대비 사용한다 제한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방지법' 발효 이후 부진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위스키 소비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웰빙 열풍과 가정지향적인 생활패턴 등으로 도수가

높은 위스키보다는 와인이나 보드카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위스키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최고급인 슈퍼프리미엄급보다 프리미엄급(1.2년생)과 스탠더드급(1.2년미만 생)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와인 선호경향은 갈수록 두드러져 한국 와인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와인산업박람회인 빈 엑스포(Vin Expo) 집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은 와인을 0.8ℓ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0ml 와인 1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마신 분량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 0.28ℓ 와 비교해 185.71% 증가한 것이다. 2006년에도 0.86ℓ 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속도는 국제 무대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다.

와인이 국내에서 득세하면서 전통주 시장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백세주 등 곡주를 비롯한 매실주 등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04년 5,708억원에서 2005년 5,260억원, 2006년 4,974억원으로 줄어 들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와인시장이 2004년 2,905억원, 2005년 3,561억원, 2006년 3,9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드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5년간 국내 보드카시장은 10.6%가량 성장했다. 전체 주류시장이 2.7% 성장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다. 국내 보드카시장은 2004년 약 3만6,000상자에서 2006년 3만8,000상자(750ml 12병 기준)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와인과 맥주는 수입호조, 위스키 수입은 2007년 들어 회복

주류별 수입현황을 보면 포도주(와인)와 맥주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위스키 수입은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포도주는 99년에 133%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 31%, 2001년 16.7%로 증가율이 하락하긴 했으나 2002년 27.4%, 지난해 55.6%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다. 2004년과 2005년에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2006년 이후 다시 높아져 2007년 1~11월에는 증가율이 72.2%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그다지 높지 않고 전반적인 소비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포도주 수입이 늘고 있다는 것은 주목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포도주 선호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맥주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를 넘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나, 2002년 들어 크게 둔화돼 2004년까지 3년간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쳤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수입증가율이 높아져 2007년 1~11월에는 4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역시 소비자들의 독주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스키의 경우 수입규모는 여전히 가장 크지만 증가율 자체는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만 해도 55.5%를 기록했던 위스키 수입증가율은 2003년부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며 오히려 내리락하고 있다. 다만 2007년들어서는 수입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류간의 수입증가율 차별화 현상은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와 수입개방 상황, 경기상황, 국내 제도상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구조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류 수입실적

단위: 천달러,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11월
맥주	1,941 [13.04]	5,022 [158.8]	11,866 [136.3]	12,802 [7.9]	13,664 [6.7]	14,848 [8.7]	16,532 [11.3]	20,506 [24.0]	28,072 [48.0]
위스키	115,919 [5.7]	180,194 [55.5]	202,355 [12.3]	247,941 [22.5]	250,401 [1.0]	213,682 [-14.7]	228,915 [7.1]	225,997 [-1.3]	239,339 [17.0]
포도주	15,122 [133.0]	19,802 [31.0]	23,109 [16.7]	29,432 [27.4]	45,783 [55.6]	57,979 [26.6]	67,655 [16.7]	88,607 [31.0]	134,095 [72.2]